

‘우영우’로 뜬 ‘팽나무’ 함평에도 있다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 ‘주목’

천연기념물 108호 지정 문화적 가치 재조명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 물이를 하면서 주요 장면이 된 ‘소덕동 팽나무’까지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이 주목받고 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1962년 천연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된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948-2)이 각광받고

있다.

2016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함평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은 줄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줄나무는 길가나 도로변에 줄처럼 길게 심어져 가로수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줄나무는 함평 향교리와 무안 청천

리 등 2곳 뿐이다.

1만4천917㎡(4천512평) 면적에 팽나무 10그루, 느티나무 15그루, 개서어나무 52그루와 푸조나무, 곰솔나무, 회화나무 각 1그루가 있으며 이들 나무의 나이는 대략 350살 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은 향교 유림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해 ‘향교 숲길’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곳은 풍수지리학 상 함평면 수산봉이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380여년 전 함평 수산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산의 기운을 막기 위해 당시 유림 대표

정방, 이양후 등 유림들이 향교리의 다른 곳에서 자란 나무들을 옮겨와 심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주변이 넓어 벌판이고 서해 바다와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등 환경적 여건으로 볼 때 강한 바닷바람으로부터 농경지와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림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대동향교초와 인접해 있는 이 숲은 마을 주민과 학생들은 물론, 명품 숲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선조들이 자연을 이겨낸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한 ‘소덕동 팽나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이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 제공>

지혜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자료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을 대표하는 명품 숲길이자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영수기자



완도군이 스포츠 하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완도를 찾은 축구팀이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하계 전지훈련지 ‘각광’

선수·관계자 400여명 방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완도군이 스포츠 하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완도군은 2일 “현재 6개 축구팀이 공설운동장, 축구전용구장, 해신구장 등에서 체력과 기량을 키우고 있으며 6개 야구 팀, 농구 아카데미 등에서 완도를 찾아 전지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계 전지훈련으로 총 400여명의 선수, 관계자 등이 완도를 방문한다. 평균 10일 정도 완도에 머물며 숙박과 외식업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전지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완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아 전지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완도군에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조성되는 등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됐으며 올해 말 해양치유센터가 준공되면 선수

들이 해양치유를 통한 재활 훈련까지 할 수 있어 완도가 전지훈련 최적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스포츠 팀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지훈련팀 유치에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완도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훈련의 만족도와 경기력을 향상시키길 바란다”며 “선수·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기자

영광군, 원전주변지역 장학금 지원

영광군은 2일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백수읍, 흥농읍, 법성면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금 지원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빛원전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적 우수자, 예체능 특기학생, 취약계층(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다. 관외 학교 재학생, 관내 취약계층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관내 학교 성적 우수자와 예체능 특기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초·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100만원이며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즉시 회수하고 향후 3년 간 장학금을 미지급할 방침이다.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823-5)로 문의하거나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고물을 참고하면 된다. /영광=김동규기자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

진도군, 총 상금 770만원...이달 말까지 접수

진도군이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소재로 한 ‘제1회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진도군은 2일 “진도개의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반영하고 진도개의 이미지와

우수성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발표는 9월 말 예정이며 선정된 우수작품은 금상 100만원(1명), 은상 각 50만원(2명), 동상 각 30만원(3명), 장려

상 각 20만원(4명), 입선 각 10만원(40명) 등 총 상금 770만원을 진도군수 상장과 함께 전달한다.

진도군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공모전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1인 당 4점으로부터 제한한다.

수상작은 진도개 행사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접수 방법은 우편과 방문 접수로 실시

하며 진도군 진도개축산과(진도군·읍성죽골길 30)에 11×14인치 인화 사진 또는 USB 등으로 저장 후 참가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개 콘텐츠를 활용한 진도개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이번 공모전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문의: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팀 061-540-6308) /진도=박세권기자

목포시내버스, 운행 중단 위기 모면

재정난으로 시내버스 천연가스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목포시내버스가 일부 대금 변제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변제하지 못한 천연가스대금이 여전히 10억여원에 달해 운행 중단 위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목포시내버스와 목포도시가스업체 등에 따르면 천연가스 미변제 대금

총 3억6천700만원이 변제됐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대금 미변제로 지난 1일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최종 기일로 통보했던 건물은 일단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7월 가스사용료를 포함하면 미변제분이 10억여원에 이르러 운행 중단 위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실정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목포=정해선기자

신안, 코로나 지원금 10만원 지급

신안군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1인 당 10만원 씩 지급한다.

신안군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간은 오는 8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군민 1인 당 10만원의 지류식 10

04점 신안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2년 5월 1일)과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며 총 소요 예산은 39억여원이다.

지급 절차는 신청 기간 동안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현장에서 상품권을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신안=양홍기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흥지사 061)353-5133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